시를 기반으로 한 21세기

문학의 발전 가능성 고찰

개요

1) 서론

2) 본론

    a) 문학의 역사적 맥락

    b) 시에 나타난 인식 반영 고찰

    c) 문학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3) 결론

서론

문학 작품은 다른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많은 가치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철학과 사상이 녹아 있다. 여러 작품에는 그 작가의 세계관,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고, 작가는 개성적인 인간형을 창조하여 작가가 지닌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대변하기도 한다. 또한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독자의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변화 시켜 주기도 한다. 삶을 정서적, 미적으로 고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문학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과 쾌감을 느끼게 해준다.

사회 혹은 대중은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지닌 가치를 작품 속에 드러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작가는 이와 같은 욕구를 반영하여 작품을 창작할 때 특정 작품에 역사·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문학 작품이 담고 있는 가치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 창작 당시에는 절실히 요구되었던 가치였다 하더라도 후대에 가서 그 가치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창작 당시에 저평가를 받았던 문학 작품이 후대에 가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보편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되, 개개의 문학 작품이 제기하고 있는 가치가 현상황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 이다.

21세기 문학의 유행(추세)은 주로 시와 노래가 대중성이 있다. 나 또한 음악을 만들 때에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서 나의 세계관, 가치관을 가사에 담아 낸다. 이러한 것처럼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이 담긴 시와 노래를 듣고 서로의 마음에 공감한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공감하는 문학에도 기초가 요구된다. 본 소논문에서는 시의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21세기 문학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

a)문학의 역사적 맥락

[1]문학의 역사는 독자, 청자, 관중에게 희망과 깨우침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산문, 운문 저작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다. 이러한 작품 속에서 쓰인 문학 기법의 발달 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글들이 문학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수표 기입장 같은 데이터 모음 등의 몇몇 기록 내용들은 문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문학의 역사는 문화사, 예술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문학은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이 한자로 기록함으로 시작 되었다. 삼국 시대에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이때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들어와서 입으로 전하던 문학을 기록하기 시작된 것 이다.

[2]한국 문학은 개화기 1876년부터 1910년 사이, 서양 문물이 대거 유입되었고, 일제 식민 통치의 시작때 새로운 형태의 문학이 등장하였다. 예로는 4,4조의 정형성을 띠고 있으며 애국사상, 진보사상의 뜻을 담고 있는 창가, 애국 개화사상과 현실 내용을 다루는 개화가사,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같은 신체시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인직의 〈혈의 누〉 등의 신체시와 최초의 현대 소설들이 등장하였다.

1920년대에는 서양 문예 사조 도입이 되었고, 동인지를 중심으로 문학을 발표하는 추세였다. 여기서 '동인지'는 일반적으로 출판되는 서적과 달리 동인(아마추어)이 사비를 들여 출간한 책을 말한다. 소설은 사실주의 소설이 유행이었고 시는 자유시가 이 당시에 등장을 하였다. 그리고 시조 부흥 운동 (최남선, 이은상, 이병기가 대표적 인물)이 일어 나게 되었고, 특정한 사상이나

---

[1] 문학의 역사[위키백과]
[2] 한국 문학 역사[지식in]인용하여 작성

주의를 선전하려는 목적이 강한 시, 주로 사회주의 사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에 감상적인 개인주의 시에 대한 반발로 경향시가 등장 한 시기이다.

1930년대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 심화와 사상의 억압 심화가 커져만 갔던 시대이다. 이 당시에는 이념을 거부한 순수시, 모더니즘 시, 생명시가 문학의 특징이었다. 예로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에서 언어와 리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모더니즘 시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쓴 시, 김광균 '와사등', 이상 '오감도', 정지용 등이 있다. 여기서 김광균은 시각적 이미지오 감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즘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광복 이전 1940년대에는 민족 탄압이 심했던 시대였다. 그때의 문학적 특징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글을 쓰게 되었고, 문학의 암흑기가 찾아왔었다.

한국 민족은 역사적으로 힘든 상황들과 여러 고난들을 겪으며 이겨내는 투지를 보여주며 살아왔다. 그래서 문학에도 그런 시련을 끈질기게 견디고 고난들을 온 몸으로 받았던 민족 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또한 동영적인 윤리관이 지배하는 전통적인 사회성향으로 한국의 문학에는 동적이고 전향적인 경향보다는 회고주의나 과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구분할 수 있는 안목으로 한국 문학을 살펴볼 때 원시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전통의 바탕과 역사적 현실에 대한 독특한 창조의욕이 고갈되는 일 없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옴을 보게 된다.

한국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지식과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나, 그런 것들을 표기하는 고유의 문자를 가지게 된 것은 훨씬 후대에 일이다. 조선시대 초기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기까지는 음운과 문법체계를 다르게 쓰던 중국의 문자인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현해야만 했다. 그것이 삼국시대에서 당연시 지켜야 하던 향찰, 이두 이지만 이것과는

다르게 중국의 한문체를 사용하여 만드는 문학활동이 양반들과 높은 관직들에서 유행하여 한글이 만들어진 후에도 끊이지 않고 약 20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 인해 한국 민족은 지난 36년간의 일제의 탄압에서 해방되었다. 문학 또한 8/15 광복의 환희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한국어를 쓰지 못하는 완전히 자유를 빼앗겼던 문학인들은 광복이란 감격으로 언어를 깎고 다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민족 문학이 제대로 발전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많았다. 1950년대 초반에는 6/25 전쟁으로 전선에 종국한 시인, 작가들의 르포르타주 작품들이 대다수였고, 한국전쟁 접전 현장으로 작품화 한 것은 거의 없었다. 한국민족들이 일제의 탄압에서 광복 후 6/25 전쟁을 겪으므로 계속된 허무와 절망으로 인해 일단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였다. 이런한 상황의 작품으로 한말숙의 〈신화의 단애〉, 서기원의 〈암사지도〉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60 ~ 1970년대에는 6/25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민족들의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상처는 60년대 말에 이르러도 작가들이 쉽게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래서 서기원, 강용준 등의 작가들이 이 시기에 전쟁의 여러 상처들을 작품으로 보여주었다. 4/19 혁명, 5/16 군사정변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작가들의 정치,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증가하면서 이호철의 〈판문점〉, 남정현의 〈분지〉,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등이 출판하게 되었다. 한편, 60년대 이후 내성적 기교주의로 불려질 만한 젊은 세대의 작가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는 박태순, 유재용, 전상국, 이청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50년대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인주의적 내성, 새로운 감성의 세계를 섬세한 언어표현으로 드러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소설사에서 볼 때 이 시대에 이르러 단편 소설 위주에서 장편소설 시대로 가는 길이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 와서 소설에 큰 변화를 주게 된 것은 그동안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대하소설의 등장이다. 대하소설은 등장과 함께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조정래의 〈태백산맥〉 황석영의 〈장길산〉역사소설이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많은 상업주의적인 소설이 나타나 독자들을 혼란케 하는 경향도 있었다. 1990년대 후, 2000년대부터는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사상 등을 담아내는 문학이 유행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b) 시에 나타난 인식 반영 고찰

이 세기를 물고 너희는, 어둔 밤에서

다시 어둠을 꿈꾸노라 조으는 조선의 밤 –

망각 뭉텅이 같은, 이 밤 속으론

햇살이 비추어 오지도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배부른 군소리로 들리노라

낮에도 밤 – 밤에도 밤 –

그 밤의 어둠에서 스며난, 뒤지기 같은 신령은,

광명의 목거지란 이름도 모르고

술취한 장님이 머 –ㄴ 길을 가듯

비틀거리는 자욱엔, 핏물이 흐른다!

이상화, 〈비음〉

위 시는 약 1925년도 쯤에 창간된 이상화의 〈비음〉이라는 시이다. 시에서도 드러나 듯이 일제에게 탄압을 받던 시대의 절절한 아픔이 느껴진다. 비틀거리는 것은 조국이고, 피를 흘리는 것도 조국이다. 낮에도 밤이고 밤에도 밤인 조국을 두고 그 당시의 민족들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화 시인은 훌륭한 시정신으로 평가 받는 사람이다. 이상화 시인은 어두운 시대를 어둡다고 말하고, 빼앗긴 것을 빼앗겼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최선의 항변을 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현실을 솔직하게 증명했다는 것으로 시인의 도리를 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상화 시인은 으밀히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기도 하였다.

하느님! 나는 당신께 돌려 보냅니다

속 썩은 한숨과 피 젖은 눈물로 이 해를 싸서

웃고 받을지 울고 받을지 모르는 당신께 돌려 보냅니다.

당신이 보낸 이 해는 목마르던 나를 물에 빠져 죽이려다가

누더기로 겨우 가린 헐벗은 몸을 태우려고 하였고

주리고 주려서 사람끼리 원망타 굶어죽고만 이 해를 돌려 보냅니다.

하느님! 나는 당신께 묻조려 합니다.

땅에 엎디어 하늘을 우러러 창자 비 – ㄴ 소리로

밉게 들을지 섧게 들을지 모르는 당신께 묻조려 합니다.

당신 보낸 이 해는 울에게 〈노아의 홍수〉를 갖고 왔다가

그 날의 〈유황불〉은 사람도 만들 수 있다 태워 보였으나

주리고 주려도 우리들이 못 깨쳤다 굶어 죽였는가 묻조려 합니다.

아 하느님!

이 해를 받으시고 오는 새해 아침부턴 벼락을 내려줍소

악도 선보담 더 착할 때 있음을 아옵든지 모르면 죽으리다.

이상화, 〈이 해를 보내는 노래〉

〈이 해를 보내는 노래〉라는 이상화 시인의 시이다. 이상화 시인이 하나님께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 나고 싶어하고,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묻는 시인의 절절함과 비장함이 드러나 있다. 강자와 약자가 드러나 있던 일제 강점기 시대에서 일제의 악행에 응징할 수 없던 조국의

상황을 시에서 나타내고 있다. ‘악도 선보담 더 착할 때 있음을 아옵든지 모르면 죽으리다'는 맨 마지막 시구가 이상화 시인의 비장한 심사를 잘 대변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서시〉

위 시는 윤동주가 1941년에 창작한 시이다. 윤동주의 〈서시〉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당시 화자의 다짐을 담아내고 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했다.’ 라는 내용은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내면이 흔들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잎새'는 윤동주의 내면을 나타내고, ‘바람'은 윤동주의 내면을 흔들고 있는 주된 요인이다. 이 구절을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소망한다는 대목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윤동주의 내면을 흔들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동주에게 부끄러움이란 자신이 조국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서 온 자책이다. 힘든 상황에 놓여진 조국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고 싶어 했지만, 그 당시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독립 투쟁에 협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책을 느끼고 있다.

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바른 도덕적 가치로 자신을 성찰하면 살아간 사람이다. '독립을 위해 내가 한것이 무엇인가.' '독립을 위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자신의 삶과 마음을 성찰한 것이 그의 시에 드러난다.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쟈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짝 골짝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총을 안고 뽈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이용악, 〈하나씩의 별〉

위 시는 광복이 된 후 1949년에 쓰여진 이용악 시인의 〈하나씩의 별〉이다. 일제의 탄압으로 부터 해방되기 전 고향을 떠나 가난과 고난을 겪은 이민자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씩의 별〉에서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은 각자의 희망과 꿈을 의미하고 있다. '하늘만 곱구나'에서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민자들이 이국 땅에서 설움과 고난을 겪고 온 사람들이라 섣부르게 조국독립의 환희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들의 심정을 알 수 있다. 고국으로 돌아 왔지만 집도 돈도 없는 사람들의 막막한 심정 또한 나타난다.

[3]4/19 혁명정신을 주제로 한 시는 많다. 전문시인의 것은 물론 나이 어린 학생을 비롯한 비전문시인들의 시까지 포함하면 무척 풍부하다. 게다가 후대에 오면서 생산된 4/19 기념시까지를 덧 붙인다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 많다. 역사 의식이 강한 시인이라면 대부분 4/19 혁명을 회상하는 시를 쓴다. 그렇게 4/19 정신은 우리 민족 정신의 주축이 되어 있으며 시대마다 새롭게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있는 것이다. 4/19 혁명은 성공한 혁명이었기에 즉각적으로 그에 대한 시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이들의 작품으로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4월의 비바람도 지나간

수난의 도심은

아무렇지도 않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갈라진 가슴팍엔

살고 싶은 무기도 빼앗겨 버렸구나.

아아 저녁이 되면

자살을 못하기 때문에

술집이 가득 넘치는 도심.

[3] 한국 현대시, 그 감동의 역사 - 정종진 [470p]

약보다도

이 고달픈 이야기들은 들으라

멍들어 가는 얼굴들을 보라.

어린 4월의 피바람에

모두들 위대한 훈장을 달구

혁명을 모독하는구나.

이제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가야 할 곳은

여기도,

저기도, 병실.

모든 자살의 집단. 멍든

기를 올려라

나의 병든 데모는 이렇게도

슬프구나.

박봉우,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

위 시는 1961년 3월에 발표된 박봉우의 〈진달래도 피면 무엇하리〉이다. 시민 혁명 후의 세태를 그래도 가장 잘 요약하여 쓴 것이다. 4월 시민 혁명 정신은 이제 안주거리로, 자기들을 과시할 것으로 남아 '혁명을 모독하는' 몸짓들만 남았을 뿐 진정한 혁명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절망감이 나타난다. 혼란이 점차 심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도 잘 버티어 냈던 한국인들을 '살고 싶은 무기마저 빼아겨 버린'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는 시로 형상화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이루었다

이젠 모두 비웠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박카스를 마시고 싶다고 하셨다.

마지막 호흡의 언덕을 넘으면서

박카스 한 병으로 입술을 적신 뒤

아무 말씀도 없이 눈을 감으셨다.

세상을 뜨는 데도 목이 마를까

그렇게 마시고 싶었으나

실컷 마셔보지 못한 서러움 때문인가,

목숨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토록 쥐고 싶었던 박카스 한 병

크기 만큼의 집착일까?

우리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박카스 한 병을 애기하였다.

어느 날 문득 제법 놓았다 싶은데

한 움큼을 쥐고 나를 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 눈이 가고

두면 물처럼 흘러갈 것을

온몸으로 막고 물길을 돌릴 때

박카스 한 병, 옹이로 박혀

집착의 껍질에 닿아 따갑다.

김신중, 〈박카스 한병〉

위 시는 김신중의 〈박카스 한병〉이다. 〈박카스 한병〉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병실에서 박카스를 드신 것을 나타낸다. 이 시에서 박카스 한 병은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기 막바지에 품는 이루지 못한 한임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은 어떤한 일들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감을 느낀다. 박카스 한 병처럼 아무리 작은 크기의 후회여도 물길은 박카스 한 병이 박혀 있는 곳은 지나가지 못한다. '목숨의 끈을 놓지못하고 그토록 쥐고 싶었던 박카스 한 병'은 현재 사회인들이 목숨을 걸어 이루어 내고 싶어하는 자신 욕망을 형상화 시켜 시에서 드러내고 있다.

c) 문학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_____[4]문학이란,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얻은 진실을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언어 예술로, '인생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창조의 세계'이다. 문학은 언어 예술이며, 문학은 개인의 경험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이다. 문학이 선호하는 세계는 허구와 개연성의 세계이다. 문학 작품은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독자적 구조물로서 일정한 짜임새를 지닌 조직체이다. 문학은 또한 인간이 자신의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탕으로 하여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다. 문학은 한마디로 언어를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는 언어예술이다.

문학을 접하는 독자들은 작품들을 통해 시인, 작가들의 사상과 가치관, 감정 등을 공감하고 소통을 한다. 개인의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문학을 통해 정서적 위로와 희망을 주기도 한다.

문학은 언어 예술이다. 문학은 언어를 매개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멜로디를 사용하여 음악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 문학은 태교때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접하게 되는 분야이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아동문학으로 시작한다. 어릴 때 읽은 작품들이 문학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에 인생에 눈을 뜰 무렵, 문학교육은 앞으로의 세계와 인생을 아는데 중요하다. 독일의 쉴러는 자기 문학을 회고 하면서 실제 인생에서 보고 배운 것보다 어릴 때 듣는 동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람들에게는 문학은 쾌락적인 것과 교시적인 기능을 한다. 그래서 문학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학생들에게 소개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게 하고, 그 작품에 대해 깊이 분석을 해야 한다. 소개한 작품의 시대적 배경, 표현, 감정

[4] 문학이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 [네이버 블로그]

등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분석하고 공부한 것들이 넓은 범위의 문학을 접할 때 유용하게 쓰이게 되고, 좋은 밑거름이 된다.

결론

문학의 역사적 맥락은 독자, 청자, 관중에게 희망과 깨우침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산문, 운문 저작의 역사적 발전 과정이다. 이러한 작품 속에서 쓰인 문학 기법의 발달 과정이기도 하다. 모든 글들이 문학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수표 기입장 같은 데이터 모음 등의 몇몇 기록 내용들은 문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문학의 역사는 문화사, 예술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대별로 문학 중 시에 반영 된 사람들의 인식은 자기 성찰과 사회 비판의식, 개인의 감정, 당시의 삶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독자의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변화 시켜 주기도 한다. 삶을 정서적, 미적으로 고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문학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과 쾌감을 느끼게 해준다.

이렇듯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기도 하고 감정과 비판 의식을 넣으면서 독자들에게 동력이 되기도 한다. 또한 문학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또 사회 인식을 반영하기도 한다. 문학은 사람들이 사고하고 인식하는 문제나 현상에 대하여 아름다운 언어 예술로 사회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21세기 문학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문학의 공간 마련, 문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 커뮤니티 개발, 인터넷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아동 문학을 시작으로 문학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접하는 문학마다 자세히 탐구하고 소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어릴 때 접하는 문학이 나중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어 준다.

문학이 사람들 삶에 이렇게 중요하듯이, 계속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를 기반으로 한 문학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문학이 사람들에게 이질감 없이 다가 가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 삶의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삶에 문학이 자리 잡아 좋은 의식, 삶의 여유 등을 갖게 되는 문학 사회가 되길 바란다.